

남아프리카공화국 - “우리 평생의 자유”

므쿠세리 잭(Mkhuseli Jack)은 남아공 포트엘리자베스 지역 아파르트헤이트 반대 대규모 보이콧 캠페인의 대변인이었다. 그는 그가 주도하고 있는 운동을 강화하는데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부 당국에 대한 산발적인 시위가 광범위하게 조직된 시위보다 효과가 적다는 것을 깨달았다. 잭은 “공동체 안에서 저항의 중심들”을 만들면 “보안군이 무너뜨리기 매우 어려운” 대중운동이 된다고 말했다.

27세에 그의 명성은 벌써 자자해졌다. 잭은 운동을 비폭력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심했다. 그랬을 때 “성별, 나이,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공동체 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는 것도 그 이유였다. 경찰과 군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젊은이들은 운동이 그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임금노동자, 여성,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잃었다. 잭과 그의 동료들은 또한 흑인거주구(township)로만 투쟁을 한정하는 것이 운동의 힘을 제한하고 인종차별을 묵인하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백인 소유 사업들의 보이콧이 시작된 계기였다.

보이콧의 최초 요구사항은 간단한 것이었다. 모든 인종에게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흑인거주구에서 군대를 물리며 직장 내 차별을 끝내는 것. 5일 후 남아공 정부는 포트엘리자베스를 포함 몇몇 특정 지역들에 긴급사태를 선포했다. 통금과 여행금지가 실시되었고 군인들의 위압적인 수색과 체포가 가능해졌다. 그러자 보이콧위원회는 요구사항을 덧붙였다. 긴급조치를 해제할 것, 정치적 수감자들을 석방할 것.

시놉시스

1984년 초, 불안의 물결이 남아공 흑인거주구를 휩쓸었다. 인종 기반 차별시스템인 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하는 반란이었다. 이 시스템으로 도심지에 살던 비백인들은 인구가 이미 초만원이고 빈곤한 흑인거주구로 내몰렸고 질 낮은 교육,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기회를 부정당했다. 비록 시위가 아파르트헤이트 정부에 대한 저항을 그 목적으로 했으나 시위는 또한 흑인거주구의 혼란과 지역 주민들과의 다툼도 야기했다. 수 천 명의 흑인이 죽었다. 포트엘리자베스의 공업도시 주변 흑인거주구들의 젊은 흑인 활동가들(상황판단이 빠르고 호감이 가는 므쿠세리 잭 포함)은 무장혁명이 아파르트헤이트를 끝장낼 수 없다고 결론짓고 잘 훈련된 비폭력행동을 향한 저항을 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1985년 활동가들은 백인 소유 사업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고 군대의 철수와 정치적 수감자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포트엘리자베스 상점들의 사업은 약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고 백인 소유주들은 불매운동가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라고 공무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결국 합의에 도달했다. 노동파업, 임차료 보이콧 등과 같은 행동을 통해 남아공 흑인들은 생산자 및 소비자로서 그들의 힘을 이용하여 백인 권력과 정권 사이를 틀어지게 만들었고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방어를 파열시켰다.

보이콧의 경제적 압박은 사업체와 정부 사이를 틀어지게 만들었다. 상점 주인들은 정부에 불매운동가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전보를 쏟아 붓기 시작했다. 정부의 탄압도 보이콧 운동을 중단시킬 수 없었다. “만약 사람들이 구매를 원치 않는다... 그건 무슨 범죄죠?” 경찰관은 상기했다. “이 모든 사람을 다 썩죽일 순 없어요. 모두를 다 가둘 수도 없단 말입니다.” 백인 상점 주인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잭은 보이콧 위원회에 “우리가 이 정부만큼 똑같이 나쁜 짓을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그들을 파괴하지는 맙시다.”라고 말했다. 11월, 위원회는 감옥에서 흑인지도자들을 풀어주는 대신에 보이콧을 유예하는 것으로 타협을 보았다.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에 보이콧을 계속 고수하는 것은 흑인공동체를 힘들게 할 것이었기 때문에 보이콧 유예 결정은 이후에도 운동을 지속하게 하고 공동체를 단결할 수 있게 하는 전술이기도 했다.

남아공 흑인들에게 “이 협상이 우리에게 분명한 이득이 있다.”는 것 보여주기 위해 므쿠세리 잭은 풀려난 수감자들이 흑인거주구로 다시 들어가는 상징적인 행동을 조직하였다. 백인 사업에 대한 보이콧의 교훈은 명확했다. “만약 남아공인들의 주류가 인간으로서 취급받지 못한다면... 국가의 안정성은 보장될 수 없으며 당신들의 사업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번창할 수 없다.”

4월 초, 잭과 그의 지지자들은 보이콧을 재개하였다. 거리와 지역의 위원회 네트워크는 시민들과 소통했고 지도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고 체포되었을 때를 위해 책임을 아래로 확산시켰다. 결국 정부는 또 다른 긴급조치를 발표했고 흑인 “혁명가들”을 폭력에 의한 정권 탈취를 도모했다고 고발했다. 사실 비폭력행동은 정부가 과거처럼 인종차별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타임라인

1976년 6월 : 소웨토 흑인거주구 봉기, 아파트트헤이트에 반대한 대규모 반대 시작
 1983년 8월 20일 : 노동조합, 여성조직, 청년조직들의 연합체인 연합민주전선(United Democratic Front, UDF) 결성
 1984년 9월 : 발트라이앵글(Vaal Triangle) 봉기, 흑인거주구 저항의 시작
 1985년 7월 21일 : 최초의 긴급조치 선포
 1986년 6월 12일 : 두 번째 긴급조치 선포, 수 천 명이 체포됨.
 1989년 10월 : 정부가 아프리카민족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 ANC)의 지도자들을 석방하기 시작함.
 1990년 2월 11일 : 27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흑인 지도자 넬슨 만델라 석방
 1994년 8월 26~29일 : 남아공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 아프리카민족회의의 정부 들어섬.

<토론주제>

1. 남아공의 활동가들은 3가지 타입의 비폭력적 방식(시위, 비협조, 직접적 개입)을 어떻게 활용하였는가? 그리고 이러한 비폭력적 방식들이 어떻게 정권의 권력을 무효화시키거나 제한시켰는가?
2. 억압적인 정권에 맞서는 활동가들이 왜 외국 언론, 특히 미국과 서유럽의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애를 쓰는가? 비폭력운동이 정권에 대항해서 국제 언론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3. 운동이 취해왔던 방법과 운동이 만들어낸 정치적 결과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비민주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민주적 정치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한가? 사례가 있는가? 있다면 무엇? 게릴라 전투나 테러리즘에 기반 한 운동보다 비폭력행동에 기반 한 운동이 지속가능한 민주적 시스템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그렇다면 왜? 아니라면 왜?

<연구주제>

1.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반인종차별운동은 정부와 기업들이 남아공을 상대로 한 경제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는데 성공하였다. 당시 이들 나라의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경제적 처벌에 대해 반대했는데 사람들만 고통 받을 뿐 억압적 권력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될 뿐이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러한 경제제재의 효과가 어땠는지 조사하라. 남아공 정부가 인종차별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재들이 어떤 효과를 미쳤는가?